

계명대 행소박물관, '행복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

박정수 기자 kiho3217@naver.com 입력 | 수정 2023.05.16 15:18

15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유물 120여 점 전시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오는 7월 15일까지 '행복을 바라는 마음_길상' 특별전을 연다. 사진제공=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립민속박물관 및 계명대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전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이어지며 국립민속박물관과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길상 관련 유물이다.

'길상'이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한다.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오복)한 삶이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높은 지위, 부를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 대를 이을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 곧 길상의 상서로운 상징을 동물과 식물, 문자 등에 담아냈고 이를 그림이나 도자기, 공예품에 표현하고 소망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랐다. 이러한 옛사람들이 바랐던 행복의 의미는 조금 달라졌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도 이어져 있다.

이번 특별전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의 길상 관련 명품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시를 통해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 기간 동안 연계 체험으로 '행복의 주문을 걸다-나전 열쇠고리 만들기'도 운영된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 포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5월 한달간은 일요일도 개관한다.

HOME (/) > 뉴스 (/news/articleList.html?sc section code=S1N1) > 대학핫뉴스-일반대 (/news/articleList.html?sc sub section code=S2N2)

계명대 행소박물관, 다섯 가지 행복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 열어

방완재 | 승인 2023.05.16 14:00

- 계명대 행소박물관, 5월 15일(월)부터 7월 15일(토)까지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 열어, 유물 120여 점 전시



계명대 행소박물관, '행복을 바라는 마음_길상' 특별전 열어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 및 계명대학교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을 개최한다.

5월 15일(월)부터 7월 15일(토)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전은 국립민속박물관이 개최했던 길상 특별전 “그 겨울의 행복”의 공동기획전으로 국립민속박물관과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길상 관련 유물 120여 점을 전시한다.

‘길상(吉祥)’이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한다.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오복(五福)]한 삶이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 대를 이을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 곧 길상의 상서로운 상징을 동물과 식물, 문자 등에 담아내었고 이를 그림이나 도자기, 공예품에 표현하여 주변에 가까이 두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러한 옛사람들이 바랐던 행복의 의미는 조금은 달라졌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도 이어져 있다.

이번 특별전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의 길상 관련 명품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전시를 통해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오복)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는 6개의 주제로 나누어, 1부 ‘오래오래 건강하게’에서는 다섯 가지 복 중에서도 옛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마치 행복의 주문을 걸 듯 목숨 ‘수(壽)’자와 복 ‘복(福)’자를 가득 그려 넣은 백수백복 그림과 오래사는 열 가지 십장생 무늬가 담긴 필통, 도시락 통, 보자기 등을 전시한다.

2부 ‘이름을 드높이고 부유하게’에서는 성공하여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부귀(富貴)’를 적어 놓은 나막신, 원숭이와 잉어, 게, 새우 등의 성공과 출세의 상징 동물로 장식된 유물을 전시한다.

3부 ‘화목하게 평안하게’에서는 화목한 부부와 가정을 바라는 소망이 담긴 나무 기러기, 아름다운 자개로 꽃과 새를 화려하게 장식한 이층 농과 베갯모 등을 전시한다.

4부 ‘무사히 자녀를 얻길’에서는 대를 이을 많은 아이를 낳아 행복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씨가 많은 과일과 식물무늬로 장식된 포도무늬 나전 함, 오이를 이고 가는 고슴도치 그림, 석류 모양 비녀, 책거리 그림 등을 전시한다.

5부 ‘별전과 길상무늬’에서는 옛사람들의 다양한 소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자·동물·식물·인물 등 다양한 길상무늬가 담긴 동전 형태의 별전을 전시한다.

마지막으로 6부 ‘재료에 새겨진 길상무늬’에서는 다양한 행복의 소망이 담긴 나전칠기, 직물 자수, 도자·나무·금속 유물을 재료별로 나누어 전시한다.

또한, 그림과 사진 속에 등장하는 옛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전시하여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전시 연계 체험으로 ‘행복의 주문을 걸다-나전 열쇠고리 만들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5월 한 달 동안에는 일요일도 개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국고 사업에도 선정되어 '박물관에서 꿈과 끼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나도 고고학자', '나만의 박물관 만들기', '박물관 전시 유물의 이해'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11월 까지 운영한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완재

☞ 인쇄

계명대 행소박물관,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 열어..유물 120여 점 전시

박종률 기자 | 승인 2023.05.16 14:17

|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대구=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다섯 가지 행복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을 열고 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을 열고 있다.(사진=계명대)

16일 계명대에 따르면 행소박물관은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 및 계명대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이번 특별전을 열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민속박물관과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길상 관련 유물 12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1부 '오래오래 건강하게', 2부 '이름을 드높이고 부유하게', 3부 '화목하게 평안하게', 4부 '무사히 자녀를 얻길', 5부 '별전과 길상무늬', 6부 '재료에 새겨진 길상무늬' 등 6개의 주제로 나눠 열리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전시 연계 체험으로 '행복의 주문을 걸다-나전 열쇠고리 만들기도' 운영한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이달 한 달 동안에는 일요일도 개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국고 사업에도 선정돼 '박물관에서 꿈과 끼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나도 고고학자', '나만의 박물관 만들기', '박물관 전시 유물의 이해'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률 기자

계명대 행소박물관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 개최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06-05 15:46:25 수정 2023-06-26 18:20:18

7월 15일까지...길상 관련 유물 120여 점 전시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계명대 제공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계명대 제공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다.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길상 관련 유물 120여 점을 전시한다.

'길상(吉祥)'이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한다. 옛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는 마음, 곧 길상의 상서로운 상징을 동물과 식물, 문자를 통해 그림이나 도자기, 공예품에 표현해 주변에 가까이 두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전시는 6개의 주제로 나뉜다. 1부 '오래오래 건강하게'에서는 오복(五福) 중에서도 옛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목숨 수(壽) 자와 복 복(福) 자를 가득 그려 넣은 백수백복 그림과 십장생 무늬가 담긴 필통, 도시락 통, 보자기 등을 전시한다.

2부 '이름을 드높이고 부유하게'에서는 성공해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부귀(富貴)'를 적어 놓은 나막신을 비롯해 원숭이와 잉어, 게, 새우 등 성공과 출세의 상징인 동물들로 장식된 유물을 전시한다.

3부 '화목하게 평안하게'에서는 화목한 부부와 가정을 바라는 소망이 담긴 농과 배갯모, 4부 '무사히 자녀를 얻길'에서는 대를 이을 많은 아이를 낳아 행복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씨가 많은 과일과 식물무늬로 장식한 포도무늬 나전함 등을 전시한다.

5부 '별전과 길상무늬'에서는 다양한 길상무늬가 담긴 동전 형태의 별전을, 6부 '재료에 새겨진 길상무늬'에서는 다양한 행복의 소망이 담긴 나전칠기, 직물 자수, 도자·나무·금속 유물을 재료별로 나눠 전시한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전시 연계 체험으로 '행복의 주문을 걸다-나전 열쇠고리 만들기'도 운영한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관계자는 "전시를 통해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오복)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7월 15일까지며 일요일은 휴관이다. 053-580-6992~3.

인기정보

AD

척추통증, 단기간 한 번에 해결 가능해.. "치료법 개발"
복권 이번주 회차 "1등예상번호" 뒀다..적중률 97.7% 넘어!?
가상화폐, 무조건 오르는 종목 공개?! "이것" 주목해라!
허리아프면 참지말고 "이것" 하세요!
주식 종목살때 "4개만"기억하면 "큰돈"벌수 있다..충격!
로또 본사 큰일났다. "용지뒀면" 전 당첨자가 밝힌 당첨비...



계명대 행소박물관,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 열어

2023-05-16 21:22



[계명대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과 계명대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특별전을 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7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전에는 국립민속박물관과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길상(吉祥)'관련 유물 120여 점이 전시 중이다.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 '오복(五福)'한 삶이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 대를 이을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 곧 길상의 상서로운 상징을 동물과 식물, 문자 등에 담아내었고 이를 그림이나 도자기, 공예품에 표현해 주변에 가까이 두고 소원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오복)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행소박물관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6개 주제로 나눠 진행되며 전시 기간 동안에는 전시 연계 체험으로 '행복의 주문을 걸다-나전 열쇠고리 만들기'도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bj7653@heraldcorp.com

☰ 인쇄하기

✕ 창닫기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계명대 행소박물관,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吉祥)’ 특별전

✎ 문정용 기자 | ☎ 승인 2023.05.16 14:21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과 계명대학교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어제(15일) 시작해 오는 7월 15일(토)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전에는 국립민속박물관과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길상(吉祥)’ 관련 유물 120여 점이 전시됩니다.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오복(五福)]한 삶이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 대를 이을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 곧 길상의 상서로운 상징을 동물과 식물, 문자 등에 담아내었고 이를 그림이나 도자기, 공예품에 표현해 주변에 가까이 두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오복)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행소박물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6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 ‘오래오래 건강하게’에서는 목숨 ‘수(壽)’자와 복 ‘복(福)’자를 가득 그려 넣은 백수백복 그림과 오래 사는 열 가지 십장생 무늬가 담긴 필통, 도시락 통, 보자기 등을 전시합니다.

2부 '이름을 드높이고 부유하게'에서는 '부귀(富貴)'를 적어 놓은 나막신, 원숭이와 잉어, 게, 새우 등의 성공과 출세의 상징 동물로 장식된 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3부 '화목하게 평안하게'에서는 나무 기러기, 아름다운 자개로 꽃과 새를 화려하게 장식한 이층 농과 베갯모 등이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4부 '무사히 자녀를 얻길'에서는 씨가 많은 과일과 식물무늬로 장식된 포도무늬 나전 함, 오이를 이고 가는 고슴도치 그림, 석류 모양 비녀, 책거리 그림 등이 전시됩니다.

5부 '별전과 길상무늬'에서는 문자·동물·식물·인물 등 다양한 길상무늬가 담긴 동전 형태의 별전을 6부 '재료에 새겨진 길상무늬'에서는 나전칠기, 직물 자수, 도자·나무·금속 유물을 재료별로 나누어 전시합니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에는 전시 연계 체험으로 '행복의 주문을 걸다-나전 열쇠고리 만들기'도 운영됩니다.

전시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

기사입력시간 : 2023/05/16 [14:46:57]

진예슬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슬 기자=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 '행복을 바라는 마음 길상' 특별전 개최 (C) 계명대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하는 대학박물관 진흥사업에 선정되어 국립민속박물관 및 계명대학교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개최했던 길상 특별전 '그 겨울의 행복'의 공동기획전으로 국립민속박물관과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길상 관련 유물 120여 점을 전시한다.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어지는 특별전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의 길상 관련 명품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오복)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6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시 기간 연계 체험으로 '행복의 주문을 걸다-나전 열쇠고리 만들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Keimyung University Hengso Museum announced that it was selected for the '2023 University Museum Promotion Support Project'.

The Keimyung University Hengso Museum announced that it was selected for the University Museum Promotion Project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supervised by the Korea University Museum Association, and will hold the 'Wish for Happiness - Auspicious Special Exhibition' jointly with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the Keimyung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This exhibition, jointly planned by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s auspicious special exhibition 'Happiness in That Winter', exhibits about 120 artifacts related to auspicious wishes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Keimyung University's Hengso Museum.

In the special exhibition, which runs from May 15 to July 15, you can see luxury relics related to auspicious signs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 time to think about the five happiness (Obok) that people in the past thought of and the meaning of happiness that we think of now.

The exhibition is divided into 6 themes, and as an experience related to the exhibition period, 'Casting a spell of happiness - making mother-of-pearl keychains' will also be operated.

The exhibition is free and open from 10 a.m. to 5 p.m. Monday through Saturday, including public holidays.

원본 기사 보기: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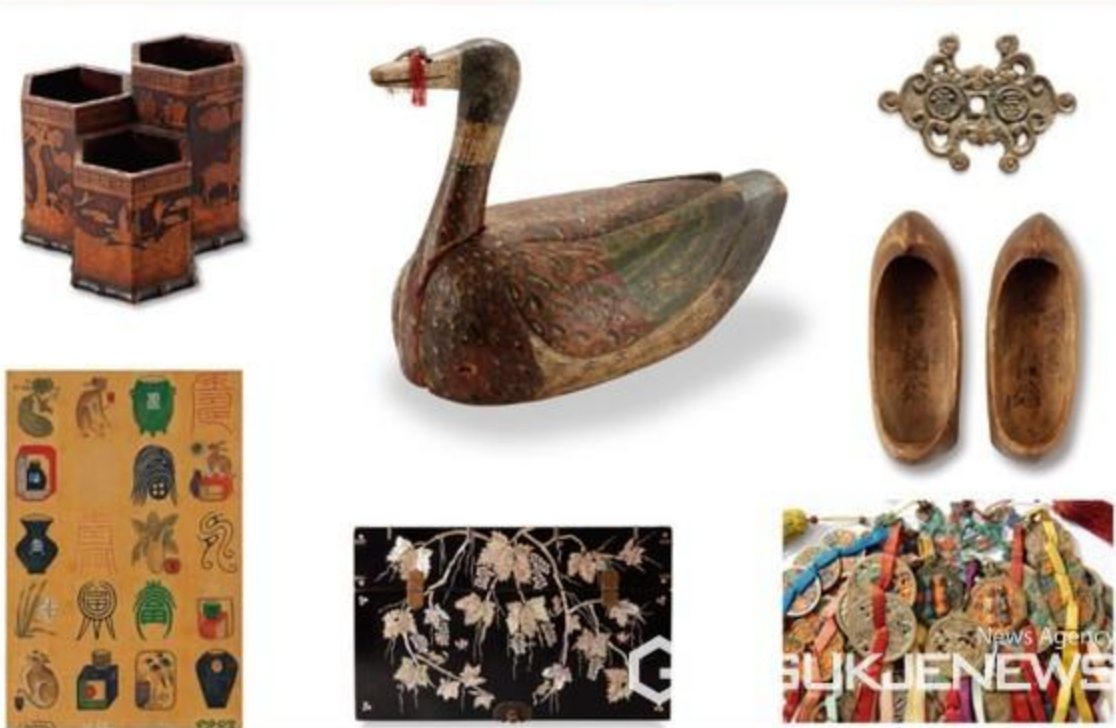
계명대 행소박물관,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 통해 다섯 가지 행복 의미 새겨

✎ 백운용 기자 | ☎ 승인 2023.05.18 10:51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사진제공=계명대학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을 열고 유물 120여 점을 전시한다"고 17일 말했다.

이에 계명대학교에 따르면, "행소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 및 계명대학교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계명대학교는 "이번 특별전이 대구·경북지역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의 길상 관련 명품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전시를 통해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오복)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백운용 기자 paekting@naver.com

계명대 행소박물관 다섯 가지 행복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 열어

✎ 박원석 기자 | Ⓞ 승인 2023.05.16 18:10

5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특별전 열어, 유물 120여 점 전시

[베리타스알파=박원석 기자]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 2023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계명대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5일부터 7월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전은 국립민속박물관이 개최했던 길상 특별전 '그 겨울의 행복'의 공동기획전으로 국립민속박물관과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길상 관련 유물 120여 점을 전시한다.

'길상(吉祥)'이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한다.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오복(五福)'한 삶이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 대를 이을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 곧 길상의 상서로운 상징을 동물과 식물, 문자 등에 담아내었고 이를 그림이나 도자기, 공예품에 표현하여 주변에 가까이 두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러한 옛사람들이 바랐던 행복의 의미는 조금은 달라졌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도 이어져 있다.

이번 특별전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의 길상 관련 명품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전시를 통해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오복)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는 6개의 주제로 나누어, 1부 '오래오래 건강하게'에서는 다섯 가지 복 중에서도 옛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마치 행복의 주문을 걸 듯 목숨 '수(壽)'자와 복 '복(福)'자를 가득 그려 넣은 백수백복 그림과 오래 사는 열 가지 십장생 무늬가 담긴 필통, 도시락 통,

보자기 등을 전시한다. 2부 '이름을 드높이고 부유하게'에서는 성공하여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부귀(富貴)'를 적어 놓은 나막신, 원숭이와 잉어, 게, 새우 등의 성공과 출세의 상징 동물로 장식된 유물을 전시한다.

3부 '화목하게 평안하게'에서는 화목한 부부와 가정을 바라는 소망이 담긴 나무 기러기, 아름다운 자개로 꽃과 새를 화려하게 장식한 이층 농과 베갯모 등을 전시한다. 4부 '무사히 자녀를 얻길'에서는 대를 이을 많은 아이를 낳아 행복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씨가 많은 과일과 식물무늬로 장식된 포도무늬 나전함, 오이를 이고 가는 고슴도치 그림, 석류 모양 비녀, 책거리 그림 등을 전시한다.

5부 '별전과 길상무늬'에서는 옛사람들의 다양한 소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자/동물/식물/인물 등 다양한 길상무늬가 담긴 동전 형태의 별전을 전시한다. 마지막으로 6부 '재료에 새겨진 길상무늬'에서는 다양한 행복의 소망이 담긴 나전칠기, 직물 자수, 도자/나무/금속 유물을 재료별로 나누어 전시한다.

또한 그림과 사진 속에 등장하는 옛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전시하여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전시 연계 체험으로 '행복의 주문을 걸다-나전 열쇠고리 만들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5월 한 달 동안에는 일요일도 개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 협회가 주관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국고 사업에도 선정돼 '박물관에서 꿈과 끼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나도 고고학자', '나만의 박물관 만들기', '박물관 전시 유물의 이해'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한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 2023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계명대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을 개최한다./사진=계명대 제공



박원석 기자 pws@verita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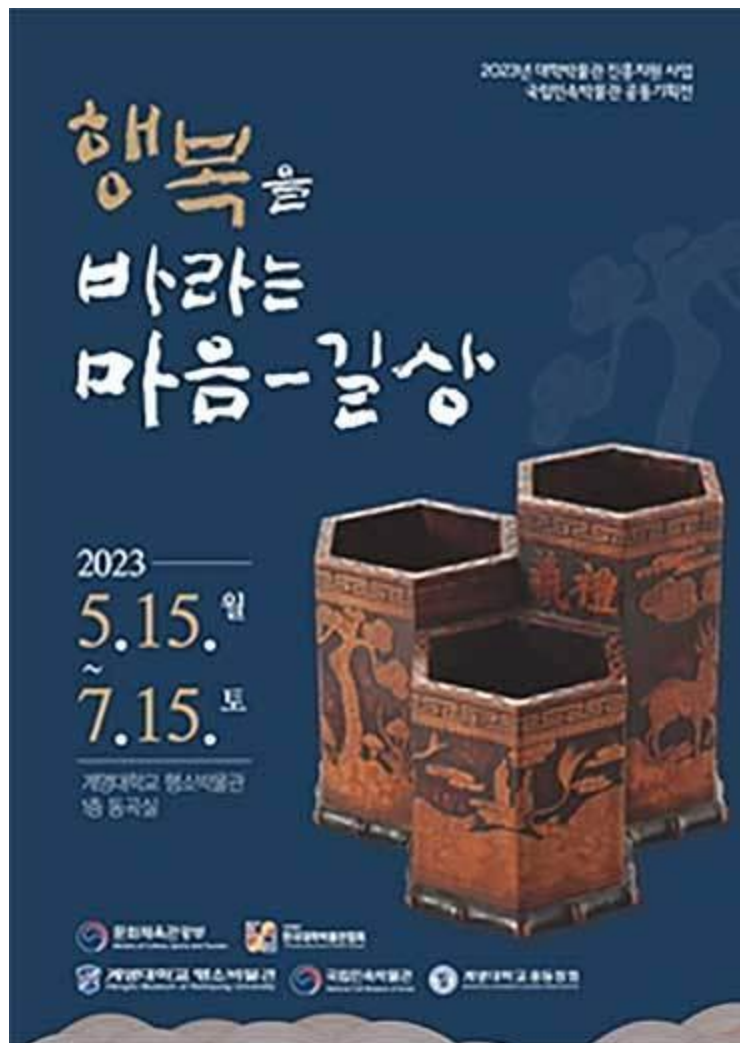
<행소박물관>에서 찾는 길상과 행복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공동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김영조 기자 pine9969@hanmail.net

등록 2023.05.15 11:27:21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국고 사업에 뽑혀 국립민속박물관과 계명대학교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열었던 특별전 《그 겨울의 행복》(2022. 11. 16.~2023. 3. 2.)을 이어서 전시하는 공동기획전으로, 국립민속박물관과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길상 관련 유물 120여 점을 전시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의 명품 유물을 관람할 좋은 기회이며, 전시를 통해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섯 가지 행복(오복)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는 6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1부 '오래 오래 건강하게'에서는 다섯 가지 복 가운데서도 옛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래 사는 장수와 관련된 백수백복 그림, 십장생무늬 필통 등 마치 주문을 걸듯 목숨 '수(壽)' 자를 그려 넣은 유물과 십장생무늬가 담긴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2부 '이름을 드높이고 부유하게'에서는 풍요롭고 귀한 삶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나막신, 원숭이와 잉어, 게, 새우 등의 길상 문양이 담긴 유물을 전시한다.

3부 '화목하게 평안하게'에서는 화목한 부부와 가정을 바라는 소망이 담긴 나무 기러기, 꽃과 새 그림을 전시한다. 4부 '무사히 자녀를 얻길'에서는 많은 아이를 낳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포도무늬 나전 함, 오이를 이고 가는 고슴도치 그림, 석류 모양 비녀 등이 전시된다. 5부 '별전과 길상무늬'에서는 사람들의 소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자·동물·식물·인물 등 다양한 길상무늬가 담긴 동전 형태의 별전을 전시한다.



마지막으로 6부 '재료에 새겨진 길상무늬'에서는 직물자수, 나전칠기, 도자·나무·금속 등 재료별로 옛사람들의 다양한 행복의 마음을 담은 유물을 전시한다. 또한 그림과 사진 속에 등장하는 옛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전시하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 기간에 전시 연계체험 '행복의 주문을 걸다-나전 열쇠고리 만들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 5월 한 달 동안에는 일요일도 개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백수백복 그림·나전함...행복 바라는 120가지 유물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전
7월 15일까지 계명대 행소박물관

등록 2023-05-16 오전 9:15:30

수정 2023-05-16 오전 9:15:30

이윤정 기자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민속박물관이 개최했던 특별전 '그 겨울의 행복'(2022년 11월 16일~2023년 3월 2일)에 이어 전시하는 공동기획전이다. 국립민속박물관과 행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길상 관련 유물 120여 점을 전시한다.



'행복을 바라는 마음-길상' 특별전 전경(사진=국립민속박물관).

전시는 6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에서는 다섯 가지 복 중에서도 옛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래 사는 장수와 관련된 백수백복 그림, 마치 주문을 걸듯 묵숨

‘수(壽)’자를 그려 넣은 유물과 십장생 무늬가 담긴 유물을 선보인다. ‘이름을 드높이고 부유하게’에서는 풍요롭고 귀한 삶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나막신, 원숭이와 잉어, 게, 새우 등의 길상 문양이 담긴 유물을 보여준다. ‘화목하게 평안하게’에서는 화목한 부부와 가정을 바라는 소망이 담긴 나무 기러기, 꽃과 새 그림을 전시한다.

‘무사히 자녀를 얻길’에서는 많은 아이를 낳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포도무늬 나전 함, 오이를 이고 가는 고슴도치 그림, 석류 모양 비녀 등을 만날 수 있다. ‘별전과 길상무늬’에서는 사람들의 소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자·동물·식물·인물 등 다양한 길상무늬가 담긴 동전 형태의 별전이 전시된다. ‘재료에 새겨진 길상무늬’에서는 직물자수, 나전칠기, 도자·나무·금속 등 재료별로 옛 사람들의 행복의 마음을 담은 유물을 볼 수 있다.

전시 기간 동안에 전시 연계체험 ‘행복의 주문을 걸다-나전 열쇠고리 만들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